

‘공천헌금’ 혐의 서청원·양정례·김노식 의원 징역형 선고

새 선거법 적극 적용... ‘검은 돈’ 거래 빼기

서 대표 징역 1년 6월...법정구속은 면해 양 정역 10월·김 정역 1년 의원직 상실형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김노식 의원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 대표 등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4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양 의원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 의원의 모친 김순애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서 대표 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주고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양측의 이해가 합치돼 비례대표 공천 대가 및 사례로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받았

다”며 ‘공천헌금’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고 전달한 경우, 전달 방법, 액수와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돌려받을 생각을 갖고 빌려준 게 아니라 차용의 의형만 갖춘 채 돈을 그냥 준 것으로 판단한다”며 “친박연대로서는 돈을 빌린 뒤 다 갚아서는 정당의 재정상황이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등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새로 들어간 공천헌금 처벌 조항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는 지난 2월말 누구당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은 물론 재산상 이익 및 직책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공직선거법에 신설했다.

공천을 대가로 암암리에 금품이 오가는 현실에서 명확한 공천헌금 처벌 조항을 마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동



18대 총선 과정에서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왼쪽)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의원이 14일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 대표 등에 대한 엄한 처벌은 향후 공천을 둘러싼 ‘검은 돈’ 거래에 대한 유·무죄 판단 및 양형에 있어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안 마땅히 처벌 규정이 없어 정치자금법 등을 에둘러 적용해야 했던 점을 고려한 것.

신설된 처벌 조항에 따라 앞서 한 차례 유죄 판결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민적 관심이 가 쏠렸던 사실상의 첫 재판을 통해 내려진

‘청와대 끈’ 알고보니 가정부?

김옥희 ‘공천 장사’ 조사...검찰 조사 받으면서도 허세

김옥희(74) 씨가 실제 한나라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정치권 인사들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라는 점을 내세우고 다니며 공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챙겼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김 씨가 대통령 인척이라는 후광을 이용해 자신에게 30여억원을 건넨 김중원 서울시버스터미널이사장을 실제 대한노인회의 국회의원 추천 후보로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이번 일을 단순 사기 사건으로 축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청와대나 정치권에 실제 권력을 발췌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1~4월 5천통에 이르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했지만 김옥희 여사나 청와대 관계자와 통화한 흔적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가 40년 동안 고용해왔고 대통령 취임 뒤 청와대에도 따라 들어간 가정부 A 씨와 김 씨가 이 시기 통화한 기록이 십여 차례 나타났다. 비슷한 시기 김 씨가 청와대 소속 운전기사 및 차려 통화한 기록도 나왔지만 이는 A 씨와 통화가 안 될 때 소재를 묻는 정도의 내용이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씨는 비록 청와대에 직접 로비를 할 능력이 없었지만 정치권을 맴돌며 꾸준히 ‘공천 장사’를 시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명박 대선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던 작년 11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한나라당 인사를 만나 ‘공천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정치권을 맴돌며 ‘먹이’를 물색하던 김 씨는 결국 1월말 김 이사장을 만나 30억 3천만원을 뜯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자신을 정객이사로 임명했던 노인회에 집요한 청탁을 함으로써 결국 김 이사장이 노인회가 추천하는 4명의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인척임을 내세워 호가호위하는 김 씨의 태도는 검찰에 불합리한 뒤에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할 무렵 자신을 조사하던 검사에게 “검찰청 냉방이 원래 이렇게 잘 안 되느냐. 내가 청와대에 얘기해서 시원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 일가족은 그녀가 올해 초부터 받아챙긴 돈 30여억원으로 매우 화려로운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검찰 “문국현 대표 체포영장 검토”

이한정 ‘공천헌금’ 수사...내달 중순 이전 기소 여부 결정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천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선고를 했기 때문에 문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빙확보를 위해)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번 회기가 끝난 뒤 이르면 다음 주 후반에 체포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문 대표에 대한 조사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이전에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24일 이후 문 대표를 8차

레 소환 요청했으나 문 대표는 모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문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17일 이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원을 주고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과 관련해 당에 6억원을 제공했고 문 대표와 이 국장은 함께 돈을 제공받았다”며 이는 올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일단 귀가 조치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14일 낮 12시40분께 정 전 사장을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일단 그를 다음 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사장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종전 입장에 별다른 변화가 없

어 조사가 순조롭지 못했지만 일단 오늘 귀가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에도 그를 상대로 변호인 입회 하에 사들께 조사를 벌였으나 검찰신문에 별다른 대응 없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겠다”고만 짧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일부 질문에는 답변을 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귀가 조치한 뒤 조사 조사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연합뉴스

공무원 합격강좌 "동영상"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무료지원서비스 (학원 수강생이 아니어도 입실환영)

한빛 공무원패스절독서실

▶▶ 전국 최대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수많은 공무원 합격자를 배출 하였습니다. 직접 확인하십시오! ◀◀

예약접수중! 234-0234
광주 북구청앞 한빛고시학원 내 독서실 이용저 수강료 20% 할인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19회시험 10월26일, 원서접수 8월18일~8월27일까지 본학원에서 원서접수 대행해드립니다.

개강 동영문제풀이 9월 1일 (수) 9월 1일~9월 12일 (1단계 위임업) 9월 16일~10월 5일 (2단계 이혼해산요약정리) 10월 6일~10월 18일 (3단계 최종 점검정리)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 1위 ● 신해법적지본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 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롭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268-8111

▶ 확장 이전, 오차동 북부경찰서 건너편 새롬빌딩 4층

44년 전통!! 본원출신 전국수석 배출!! [승은영님 평균 98.7점] 합격률1위!!

공인중개사 최종문제풀이 특강

9월 1일 시험에 꼭! 출제되는 엄선된 문제 독집강좌! 합격률을 드려드리겠습니다!

19회 공인중개사 1차 시험합격을 위한 1차 진검승부 "절대합격반" 수강생 모집

● 개강: 9월 1일 ● 모집인원: 선착순 50명 (7차미집류) ● 강의일정: 9월 1일~10월 17일

● 강의장소: 본원 (매주 월, 수, 목 오후반) 협민 (매주 월, 화, 목 야간반)
● 수강료: 200,000원 (경북출판사 문제집 제공)
● 교수진: 연일 신명재교수, 학계권 신관석 교수

공인중개사 전문 www.landkor.com **광주고시학원**

본원 ☎ 227-8003 (구)도청 앞 전일빌딩 뒤
첨단점 ☎ 971-0002 (구)비트 칠만점 옆 광주은행 4F

'08년 공무원 시험에 합격이 유력한 개강이 9월 1일입니다. 無等과 함께 합격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

7.9급 공무원 합격강좌

◎ 국가직 ◎ 지방직

◎ 강좌직종: 행정고시, 행정직, 경찰, 교보, 보복, 군, 토건, 전, 정, 행, 무, 세, 원, 찰, 공, 정, 호, 진, 지, 무, 목, 축, 산

하반기 시험 **개강 9월 1일(주-야간반 모집)** 합격 회원 모집

● 전남: 9급 세무직 및 전문직 9월 27일 209명 모집
● 전북: 제2회 8, 9급 기술직 9월 27일 119명 모집
● 충청권: 9급 행정직 9월 27일 70명 모집

● 6개월 (총) 회원 80만명
● 1년 (총) 회원 120만명
● 합격시까지 170만명

=귀하의 합격을 위해 감(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www.mdgosi.co.kr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SCU한의대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